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 1 中 리창 총리,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정부 수반 이사회’ 개막식 연설

■ 신화사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총리 리창은 26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부 수반(총리) 이사회 제22차 회의’에 참석

\*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정부 수반 이사회 : 상하이협력기구 조직의 비상설기구로서, 정기적으로 해마다 개최하며 각 회원국의 총리가 참가하여 기구 예산 및 회원국 간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정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준회원국은 몽골,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 등이 있음

- 동 회의에서 리 총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협력 강화와 관련한 네 가지 의견을 제시: ①지역 안보 장벽을 굳건히 하고 외부 간섭을 단호히 억제 ②경제의 빠른 회복을 공동으로 촉진하고 무역투자 자유화·편리화를 추진 ③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 ④인적 교류를 공동으로 촉진하고 교육·문화관광·스포츠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 등임
- 동 회의에 스마일로프 카자흐스탄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 코히르 라솔조다 타지키스탄 총리, 아리포프 압둘라 우즈베키스탄 총리, 인도·파키스탄 외무장관 및 옵서버 국가인 로만 골로프첸코 벨라루스 총리, 몽골 총리 등이 참석



자료원 : 신화사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10/content\\_6912111.htm](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10/content_6912111.htm)

## 2 中, 중앙금융공작회의 베이징서 개최...외자 금융기관 유치 강조

- 10월 24일 중장기 금융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금융공작회의가 10월 30일~31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면서 시 주석은 외자 금융기관을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
- 동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 △자금조달을 최적화하여 기술 혁신, 첨단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육성을 강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주식 발행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일류 투자 은행 및 투자 기관을 육성 △채권시장의 발전을 추진 △금융 분야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경간 금융투자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 금융기관 및 외국자본의 중국시장 진출을 유치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및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및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 등임

자료원 : 신화사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10/content\\_6912992.htm](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10/content_6912992.htm)

## 3 中 외교부 부장 왕이 워싱턴서 블링컨 회동... 건강한 중미관계 강조

- 신화사 10월 26일, 2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부장 왕이(王毅)는 워싱턴에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연이틀 회담을 함. 양측은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발표
- 왕이는 양국은 대화를 재개해야 할 뿐 아니라 깊고 포괄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가능한 빨리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이는 양국에 이익이 되고 세계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중·미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오해를 줄이며, 끊임없이 공통의 인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양국은 여객 직항 항공편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원 : 중국신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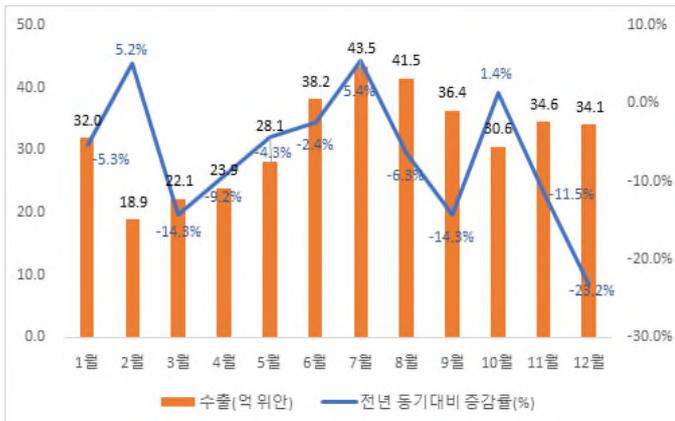
<https://baijiahao.baidu.com/s?id=1780980905783762693&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80873427320670279&wfr=spider&for=pc>

## 4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검사 관리법> 초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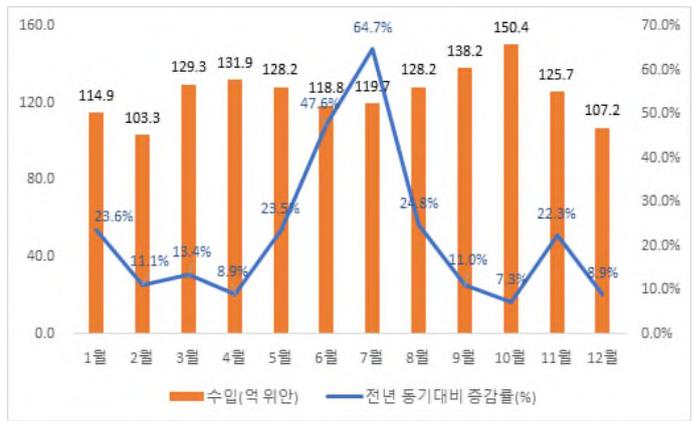
- 10월 19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검사 관리법>《化妆品检查管理办法(征求意见稿)》 관련 초안을 발표하여 11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동 초안은 총 8장 4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중국내 화장품 생산업자는 동 관리법을 적용한다고 명시 : 화장품의 신규 원료 등록 및 제출, 치약 등록 및 검사, 화장품 포장재 공급업체 등은 동 규정을 준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검사관리 업무를 담당 △화장품 검사에 대해 허가 검사, 정기검사, 샘플링 검사, 기타 검사 등으로 구분 △어린이 화장품, 특수 화장품 및 신원료 화장품 생산 업체에 대한 검사 방식을 규정한 것 등임
- 한편, 해관통계에 따르면 중국 2022년 화장품 수출액은 376억 5,000만 위안(약 69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했고 수입액은 1,493억 6,000만 위안(약 27조 6,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집계

2022년 중국 화장품 월별 수출액 통계



출처: 줘메이리(聚美丽)

2022년 중국 화장품 월별 수입액 통계



출처: 줘메이리(聚美丽)

자료원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https://www.nmpa.gov.cn/xxgk/zhqyj/zhqyjzhzp/20231019154526115.html>

<https://www.jiemian.com/article/9202180.html>

## 5 中 상무부, <2024년 화물 수출 할당 총량> 발표

- 10월 27일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수출품목 할당량 관리법>, <수출품목 할당량 입찰법> 등에 따라 <2024년 화물 수출 할당 총량>(2024年货物出口配额总量)을 발표함

- 2024년 화물 수출 할당 총량 및 할당관리 사항은 아래와 같음 :
  - ① 감초 및 감초 제품 520만 kg, 약재용 인공 재배 마황 114만 kg, 살아있는 돼지(홍콩·마카오 대상) 158만 400마리, 살아있는 소(홍콩·마카오 대상) 2만 8,000마리, 살아있는 닭(홍콩 대상) 300만 마리, 톱재 10만m<sup>3</sup>, 인초 및 인초관련 제품 1,700만 kg임
  - ② 상기 화물을 수출하는 무역업자는 상무부에 할당량을 신청하고 할당량 증명서류 또는 할당량 낙찰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획득한 후 ‘수출허가증’을 통해 해관에 수출 신고를 진행
  - ③ 2024년 수출 할당량(입찰 방식으로 발표한 할당량 제외)의 신청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고 신청자는 성(省)급 지방 상무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성급 지방 상무 주관 부서는 신청자료를 확인하고 상무부에 송부
  - ④ 상무부는 법규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2023년 12월 15일까지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자에 한해 할당량을 배분
  - ⑤ 감초 및 감초 제품, 인초 및 인초 제품의 수출 할당량은 입찰을 통해 할당되며 신청 조건 및 절차는 추후 별도 발표
  - ⑥ 2024년에도 인광석 및 백은 품목에 대해 ‘수출 쿼터’가 아닌 ‘수출허가증’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인광석 또는 백은을 수출하는 무역업자는 화물 수출 계약서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허가증’에 따라 해관에 화물수출 신고 및 통관을 진행

\* 상무부는 2018년 10월 30일에 <2019년 화물수출 쿼터 관리 유관사항에 대한 공고문>(《关于2019年货物出口配额管理有关事项的公告》)을 발표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인광석, 백은에 대한 ‘수출 쿼터’제를 잠정 중단하고 ‘수출허가증’ 관리제로 조정하였음. 그 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연장을 함

자료원 : 상무부

<http://www.mofcom.gov.cn/article/zwgk/gkzcfb/202310/20231003449868.shtml>

## 6 中 해관총서, <가공무역 발전을 위한 16개 조치> 발표

- 10월 31일, 해관총서는 <가공무역 발전을 위한 16개 조치>(《关于推动加工贸易持续高质量发展改革实施方案》)를 발표함
- 동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심가공결전(深加工结转, 가공 무역업체가 보세 수입 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다른 해관 관할구 내의 가공 무역업체에 보내어 2차 가공을 진행한 후 수출하는 경영활동)의 신고 기간 연장 △가공무역 수출품의 반품·교환 관리 최적화 △ERP 시스템을 활용한 보세화물정보 자동화 수집 △장비 재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중서부·동베이 지역에 원자재 수입 보세 창고를 설립하여 현지 가공무역 발전을 지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 보세 감독 관리 시스템 구축 등임

- 한편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3년 1~9월 중국 가공무역 수출입 총액은 5조 5,700억 위안(한화 약 1,030조 2,300억 원)으로 전체 수출입 총액의 18.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

자료원 : 해관총서

[https://mp.weixin.qq.com/s/J9ffezCZCFPSaGkOv\\_qu3w](https://mp.weixin.qq.com/s/J9ffezCZCFPSaGkOv_qu3w)

<https://mp.weixin.qq.com/s/sFdc1c0jvK6AFr8aIVKKAQ>

## 7 中 해관총서, 〈11월 1일부터 건강신고서 작성 의무화 폐지〉 발표

- 10월 26일, 해관총서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발진, 원인불명의 출혈 등 감염병 증상을 제외한 모든 출입국 인원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신고서〉(《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健康申明卡》) 작성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함
- 동 공고문에 따라 감염성 증상 또는 질병 진단을 받은 출입국 인원은 주동적으로 해관에 건강 신고를 하고 체온 검사, 샘플링 검사 및 기타 위생 검역 업무를 수행해야 함. 검역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자는 법적 책임을 추궁
- 한편, 지난 10월 7일 중국 국가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과 국경절 연휴 기간 출입국 인원수는 1,181만 8,000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약 2.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 이 중 입국자는 587만 명, 출국자는 594만 8,000명을 기록

자료원 :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5457761/index.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79068470625522005&wfr=spider&for=pc>